

악한 과보는 불법을 멀리하게 해

양승규 연구교수, 티베트불교 사상으로 업과 윤회 풀어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미(一味)로 회통한다. 도차제(道次第)에서 업과 윤회 기본 정신은 <반야경>에서 성문(聲聞)과 연각(緣覺)이 가르침을 심수하는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양승규 동국대 연구교수는 5월 14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불교학연구회(회장 박경준) ‘업(業)과 윤회(輪廻)’를 주제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승규 교수는 티베트 종파 수행 안내서인 <Lam-rim(道次第)>을 중심으로 티베트 불교의 업과 윤회 관점을 수행의 차원에서 설명했다.

양승규 교수는 “<Lam-rim(道次第)>은 업과 윤회의 이해를 통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해명되고 있다”며 “업과 윤회는 불교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인도에서 설명해 왔으며 불교 이외의 종교와 철학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해왔지만 불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업과 윤회의 방식은 다르다”고 말했다.

양승규 교수는 下土道, 中土道, 上土道 수행단계인 삼사도(三士道)의 번역의 틀을 깨고 작은사람, 중간사람, 큰사람이라는 우리말로 번역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도차제>에서 ‘업설’의 가르침은 세상의 원만함을 획득하려는 작은 사람[下土道]에서 설명된다. ‘작은 사람’은 현생



의 안락만을 염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정도에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 이들에게 내생이 있으며, 현생의 안락함만큼 내생의 안락이 중요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업설을 가르친다. 양 교수는 “십악업(十惡業)과 십선업(十善業)에도 과보는 따르며, 선과는 일체지의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지만, 악과는 불법을 닦을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끈다고 설명한다”며 “<도차제>에서는 악업을 바르게 참회해 함으로써 수행으로 악업 소멸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사람을 위해서는 악도와 고통을 설명하는데 그저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과

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차제>에서 ‘윤회’에 대한 문제는 중간사람[中土道]에 이르러서는 윤회하는 방식과 이유를 사성제의 고제(苦諦)와 집제(執諦)로 집중 설명한다. 양 교수는 “중간사람은 윤회에 해탈하는 적멸과 안락의 정도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중간사람과 상응하는 <도차제>에서 고제를 설명하는 것은 수행의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이다”며 “중간사람은 고제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관찰행을 통해 관찰할 대상을 잃지 않고 대상에 대해 들뜨거나 가라앉지도 않도록 분명하게 대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고제는 윤회의 결과라던 집제는 윤회의

원인이다. 윤회의 원인은 번뇌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도차제>에서는 집제를 번뇌의 중심으로 설명한다. 번뇌의 본질과 갈래, 번뇌를 통해 업을 쌓고 죽고 태어나는 방식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큰사람[上土道]은 중생의 고통을 보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람으로 대승의 가르침이고 깨달음의 길이다. 양승규 교수는 “<도차제>에서는 큰사람의 도차제로 완성된다. 작은사람과 중간사람에 상응하는 <도차제>에서 윤회의 과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지만 큰사람을 위해 방편적으로 시설한 것이며 개인의 증득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부처님은 무어열반에 든 성문과 연각을 깨워서 대승의 길로 이끈다. 대승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 보리심이고, 대승의 길이 보살행이고, 대승의 목적이 무주처열반에서 중등정각을 성취했다.

양승규 교수는 “<도차제>의 기본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회통하며 그 중심축에는 큰사람의 도차제인 대승의 가르침이 자리하고 있다”며 “업설과 윤회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은 보살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유해 스스로 악업과 윤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중요한 행의 방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 천진영 기자

단신 모음

불교진흥원 제9회 대원상 후보 공모

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철)은 제9회 대원상(大圓賞) 후보를 공모한다. 포교대상, 콘텐츠대상 두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한다. 접수기간은 각각 7월 1~29일과 8월 1~31일이며 총 상금은 9000만원이다. (02)719-2606

성철 스님 100주년 기념 2차 학술포럼 개최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기념 2차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한국 근대불교 100년과 퇴옹성철’을 주제로 5월 26일 오후 1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02)2198-5100

동국대 불문연 봉축세미나 개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5월 28일 오전 10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봉축세미나를 개최한다. 목포대 최연식 교수 등 5명이 주제발표 한다. (02)2260-8507

문화부, 불교서적 6권 우수학술도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389종의 도서를 ‘2011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했다. 불교서적으로는 <용수의 사유>(신상환, 도서출판b), <육조단경>(정은주, 풀빛) 등 6권이 포함됐다. 선정 목록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kpec.or.kr

금강대, 제16회 인문한국 콜로키움 개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5월 25일 오후 3시 금강대학교 본관에서 ‘불교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제로 제16회 인문한국(HK)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하유진 씨와 박보람 씨가 주제 발표했다. (041)731-3621

동국대 불문연 ‘불교학보’ 인용지수 1위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오세정)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발행 <불교학보>가 2008년 기준 인문학 KCI인용지수가 종교학 분야 1위 및 전국 대학연구소 발행 학술지 6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www.nrf.re.kr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중수)은 5월 3일~6월 12일까지 2층 왕실 생활실에서 보물 제1660호 및 제1661호인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과 8종의 불교경전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02)3701-7500

선원청규 정신으로 돌아가면 불교 살아나

한국선학회 ‘선원청규’ 주제 춘계학술대회 개최



원청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원청규>편찬위원장인 의정 스님(양평 용문선원 선원장)이 ‘선원청규’와 수행’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주제발표에는 용문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이 ‘선원 청규’의 편찬 의의와 그 내용’을, 김호귀 동국대 연구교수가 ‘수선결사문’의 수선 작법과 수선결사의 이념’을, 연세대 신규탁 교수가 ‘범법경’의 계율과 수행’을, 창원문성대 이택진 교수가 ‘선원청규’와 한국불교 수행의 나아갈 길’을 발표했다.

의정 스님은 “생활선의 종합지침서인 청규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간화선을 회복하고 세계화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규에 나타나는 특색으로 대중운력을 통해 노동을 수행화한 보정법(普請法)과 차(茶)생활이 곧 수행이라는 생활선을 구체화한 선다례(禪茶

禮)는 선종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의정 스님은 “한국 선종의 근본 수행법인 간화선이 삶과 수행이 분리돼 있다”며 “간화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해 위기에 직면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선원의 내부를 정비하고 밖으로 정법을 유포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청정대중들은 두려움 없이 성찰하고 실천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월암 스님은 “선원청규의 편찬의의는 한국선불교 100년의 역사에 최초로 제정됐다는 역사적 의미와 한국선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데 있다”며 <선원청규>를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다.

김호귀 연구교수는 <수선결사문>을 백

과가 독자적으로 선관을 제시한 것으로 선리(禪理)에 대한 참구와 실재를 실천하기 위한 수선 방법 및 이념을 기록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 연구교수는 백파가 수선결사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인 <사중규승>의 일곱 가지 항목을 통해 “<사중규승>의 이념은 육바라밀의 보살도에 있으며, 수선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보살도의 실천이다”고 설명했다.

이덕진 교수는 “청규는 불교의 근본정신의 계승과 현실도양에 적합한 새로운 실천체계로서 규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진영 기자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우학 스님의 신간

감사하고 사랑하며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삶의 빛깔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학 스님은 감사와 사랑을 참좋은 행복 바이러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참좋은 행복 바이러스인 감사와 사랑이 우리가 늘 꿈꾸는 행복, 그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스님의 일상을 통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상이라는 것이 보통의 우리에게 그리 멀지도 낯설지도 않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래서 행복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음을 이 책은 깨닫게 할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고 사랑하십시오..

참좋은행복 바이러스 | 컬러 304쪽 | 정가 13,000원 | 구입문의 도서출판 좋은인연 또는 불교대학서점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053-474-8228 |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 홈페이지 한국불교대학 www.TVBuddha.kr (행거모집 합니다) | 불교대학서점 053-474-8229 |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마 cafe.daum.net/indelamang

2011년 옥천범음대학 하계특강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보유자이신 김구해스님께서 직접 생전예수재를 교수하시니 많은 분들의 동참바랍니다.

□ 생전예수재 - 교수 : 김구해 (보유자)		
	날짜 및 요일	시 간
개강일	6월 30일 목요일	오후 1시 ~ 3시
수업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 ~ 3시
종강일	7월 29일 금요일	오후 1시 ~ 3시
□ 범 고 무 - 교수 : 이기봉 (전수교육조교)		
	날짜 및 요일	시 간
개강일	6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수업일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1시 ~ 3시
수업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종강일	7월 28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명 발 - 교수 : 한동의 (전수교육보조자)		
	날짜 및 요일	시 간
개강일	6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수업일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종강일	7월 26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392-3234
※(주의) 각 과목별 개강일, 수업일, 종강일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장 이기봉 합장**